

“장수에 축구종합센터 유치”

도내 체육인들 ‘한마음’ 결의
“고지대 적응 훈련 최적지
타지역에 비해 지가 저렴
사업추진시 토지구입비 절감”

“청정 지역 장수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하자”

전북 체육인들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제2NFC)가 장수군으로 유치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다.

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날 전북체육회관 광장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체육인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축구종합센터 장수 유치를 위한 체육인들의 의지표명과 결의를 보여주기를 위해 마련됐으며 체육회 임원과 직원, 종목단체 임원, 시군체육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파주 축구종합센터에 이은 제2의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며 1·2차 심사를 거쳐 장수를 비롯해 천안과 경주, 상주, 예천, 김포, 용인, 여주 등 8개 시군을 선정했다.

체육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대한축구협회가 1·2차 심사를 거쳐 장수군 등 전국 8개 지자체를 후보지로 발표했고, 현장실사 등의



전북도내 체육인들은 1일 전북체육회관 광장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를 위한 체육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절차를 진행한 뒤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며 “전북지역 체육인들과 200만 전북도민들은 장수군에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수군의 경우 해발 500m의 고도를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고지대 적응 훈련의 최적지이며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여름철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며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지가도 저렴해 부지확보는 물론이고 사업추진 시 토지구입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수군의 경우 영호남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으로 접근성이 탁월하다”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북경제를 깊이 통찰하고 지역균형 개발도 모색하는 심모원려(深謀遠慮)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파주 축구종합센터의 약 3배 크기인 33만㎡ 부지에 소형스타디움과 천연·인조 잔디 축구장, 다목적체육관과 축구 과학센터, 체력단련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아시아 공기총선수권 ‘성적 우수’

임실군청 강민정·황성은 선수
10M공기권총 단체전 1위 등 차지



임실군청 소속 강민정, 황성은 선수가 타이완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아 공기총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해 10M공기권총 단체전 1위(강민정, 황성은, 김병희)와 10M공기권총 혼성 2위(김모세, 황성은)를 차지했다.

대회 1일차 10M공기권총 혼성에 출전한 강민정(임실군청), 김모세 선수는 경기 내내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며 선전했지만 인도 대표팀에게 총점 3.7점 차이로 아쉽게도 금메달을 내주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대회 3일차 10M공기권총 단체전에 출전한 임실군청 강민정, 황성은 선수는 대만과 접전 끝에 1점 차로 대만 대표팀을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실군청 박민수 감독은 “감독 부임 첫 해부터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두각을 보이며 선전하고 있어 금년 한해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지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경남FC “축구장 선거 유세 자유한국당, 법적 책임져야”

경기장내 유세, 축구협회·프로축구연맹이 금해
“자유한국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 유세”

프로축구 경남FC가 축구장 안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황교안 대표와 강기운 후보 등 자유한국당에 대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은 1일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황 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경남FC-대구FC의 K리그1(부리그)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4.3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밖 유세는 법이나 대한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내 유세는 협회, 연맹이 금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연맹은 경남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 경남 구단에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장 안에서 선거 운동을 벌이는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남은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

련해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았으며 경호업체와의 미팅시에 지침을 전달해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선거 유세가 있던 경기당일에 연맹에 주의사항을 재차 확인해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을 모든 임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왔고, 이후 막무가내로 유세를 펼쳤다는 게 구단의 주장이다.

경남은 “N석 근처 8번 게이트에서 입장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 일부 유세원과 경호원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경기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 안 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며 유세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 측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한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라며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고,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태권도를 즐길 사람?

태권도진흥재단, 7월 26일 개최 청소년태권도캠프 참가 국내 청소년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들이 참가하는 ‘2019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이하 캠프)에 참가할 국내 청소년(만 13~19세)을

모집한다.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태권도원과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진행되는 캠프에는 20여 개국의 청소년 90여명과 국내 청소년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하는 국외 청소년은 재외공관 및 문화원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태권도 수련생으로 이들은 4월 중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 참가자는 4월 14일까지 단 10명만 모집하며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태권도원 홈페이지

이지 알림마당을 참고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캠프의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는 관계로 영어 소통이 가능한 태권도 수련생을 우대하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태권도원에서 겨루기와 품새 수련, 태권도힐링테라피·명상·음악 품새, 문화교류 행사 등이 진행되며, 8월 1일에는 전쟁기념관 등 서울 내 명소를 방문하여 캠프 기간 동안의 태권도 수련 결과를 선보이고 한국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갖는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한국 청소년들은 외국 청소년들과 영어로 생활하며 태권도 수련을 비롯해 문화교류와 여학 능력 향상 등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 참가비용은 10만원으로 6박 7일간 이루어지는 숙박과 식사·교통·각 프로그램 참가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수료 시 태권도원 기념품 등을 지급한다.

/무주=전문선기자

모악산 상생·평화의 길을 걷다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

The 12th Gimje Moak Mountain Festival

축제기간 2019년 4월 5일(금) ~ 4월 7일(일), 3일간

축제장소 모악산(금산사) 특설무대

주제 모악산, 상생·평화의 길을 걷다

내용 공식행사, 공연행사, 상생행사, 체험행사

행사장 오는길

김제시 관광안내소(모악산)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55

